2024
학습동아리
학습결과물



동아리명 : 책크메이트

1 동아리회원 추천도서 목록

➧ 첫 모임 전에 동아리 회원 각자 1~3권 함께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여『책크메이트』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어 봅니다.

	책제목	저자	출판사
1	관계도 반품이 됩니다	박민근	글담출판
2	이제껏 너를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성유미	인플루엔셜
3	그러니까 제 말은요	고송이	북인사이트
4	애쓰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쉬하오이	학고재
5	어쩌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일자샌드	인플루엔셜
6	오십에 읽는 논어	최종엽	유노북스
7	오십에 읽는 손자병법	최송목	유노북스
8	오십에 읽는 순자	최종엽	유노부스
9	오십에 읽는 내 운명 이야기	강상구	흐름출판
10	오십에 다시 읽는 이솝 우화	강상구	원앤원북스
11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히가시노 게이고	현대문학
12	모모	미하엘 엔데	비룡소
13	문과 남자의 과학공부	유시민	돌베개
14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인간	김상욱	바다출판사
15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김지윤	팩토리나인
16	동물농장	조지 오웰	민음사
17	기억전달자	로이스 로리	비룡소
18	지킬박사와 하이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달곰미디어
19	유충렬전	김원석	영림카디널
20	페인트	이희영	창비
21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창비
22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	김혜민	시크릿하우스
23	어른이 되었어도 외로움에 익숙해지진 않아	마리사 프랑코	21세기 북스
24	레퓨테이션:명예	세라 본	미디어창비
25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데이비드 실즈	문학동네
26	꽃이 사람이다	나태주	샘터

27	이수의 일기	전이수	글의온도
28	여행의 이유	김영하	복복서가
29	눈물꽃 소년	박노해	느린걸음
30	내가 천 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	김도윤	북로망스
31	인성이 실력이다	조벽	해냄
32	태도에 관하여	임경선	토스트
33	미움받을 용기	기시미 이치로	인플루엔셜
34	회사에 들키지 말아야 할 당신의 속마음	정한이	이다북스
35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비즈니스북스
36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래오 버스카글리아	홍익피앤씨
37	감정은 사라져도 결과는 남는다	이해인	필름
38	일류의 조건	사이토 다카시	필름
39	사람을 안다는것	데이비드 브룩스	웅진지식하우스
40	행복한 이기주의자	웨인 다이어	21세기 북스
41	투명인간	성석제	창비
42	완벽한 아이	모드 쥘리앵	복복서가
43	밝은 밤	최은영	문학동네
44	모순	양귀자	쓰다
45	순례주택	유은실	비룡소
46	안데르센동화집(1~7)	안데르센	시공주니어

2 동아리 활동 선정 도서 읽고 생각 나누기

♠『이수의 일기』



- **전이수 글/그림**

『이수의 일기』를 첫 책으로 선택한 이유는 하루하루의 일기로 쓰인 형식으로 틈틈이 읽어도 내용을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선택함.

『이수의 일기』는 전이수 작가 14살 소년의 경험, 추억과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이다.
『이수의 일기』 글, 그림 모두 9살부터 열네 살 동안 그리고 쓴 일기로 채워져 있고, 일기는 작가의 가족 이야기로 쓰여있다.
이 책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를 일깨워 준다.

- **『이수의 일기』 중 기억에 남는 곳**

➧ 안 되는 일은 잠시 내버려 두고 되는 일은 된다고 행복해하는 거다. 행복은 이렇게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어도 커지는 것 같다. 하나씩까지를 뻗고 연한 초록색 잎을 조금씩 틔우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아주아주 큰 행복의 나무를 키워보자. 행복은 이렇게 나 자신 안에 있는 것 같다. 오늘도 모두가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9년 1월 3일 일기 중》

➧ 가끔 나도 우태와 유담이와 싸울 때가 있다. 그럴 땐 나도 이기기 위해 못된 말을 한마디 더 던질 때가 있다. 결국 내가 이기고 나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다. 더 크게 말하고 더 못된 말을 해서 상처를 주면 그건 이긴 것이 아니다. …… 《2019년 4월 2일 일기 중》

➧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에서 이수는 좀 더 좋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 동생들에게 가족에게 내가 먼저 바뀌자는 생각했다.
"세상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기보다 내가 먼저 면하면, 우리 가족도 다른 사람들도 이 사회도, 나라도, 세상도 바뀌어 갈 거야."…… 《2020년 1월 1일 일기 중》

➧ 선생님의 강요 때문에 하게 된 마음이 없는 이쁜 말은 싫다. 마음이 있는 이쁜 말을 나는 하고 싶다.
난 언제인가 깨달았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그 존중은 '요'를 붙여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벽이 없어야만 생겨난다는 것이다.…… 《2019년 10월 21일 일기 중》

➧ "오빠는 전기가 어디 있어?" -중략-
나한테 전기는 어디 있을까 하고.... 내가 충전하는 곳은 이 두 손이 아닐지 생각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두 손으로 안을 수 있는 것 같다. 이 두 손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중에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겠다. 유정이가 말하는 전기가 내게도 신나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 《2020년 2월 16일 일기 중》

- **『이수의 일기』 읽고 함께 나눈 이야기**

➽ 책을 쓴 이수는 엄마, 외할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배려와 따뜻한 마음을 보고 자라 아홉 살 아이 같지 않고 어른스러움을 갖고 있다.

➽ 아이가 쓴 책인데 얼마큼의 울림을 줄까.... 생각이 들었지만, 책을 읽다 보니 어린아이의 글임에도 마음에 와닿는 곳이 많았다.

➽ 이수 엄마는 아이 스스로 충분히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아이를 키웠다. 나도 내 아이에게 빨리빨리 하라고 외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다면 이수와 같은 아이로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

➽ 어른인 우리도 내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수라는 아이는 자기의 마음을 잘 알고 잘 다루고 있다는 점이 배울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이수처럼 공감 능력이 높다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이들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놀랍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 그냥 지나쳤거나 잊고 지냈을 법한 생각들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내용들 또한 한참 어른인 나보다 깊은 것 같다. 이수의 이런 마음들은 타고났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에게서 배우고 익혔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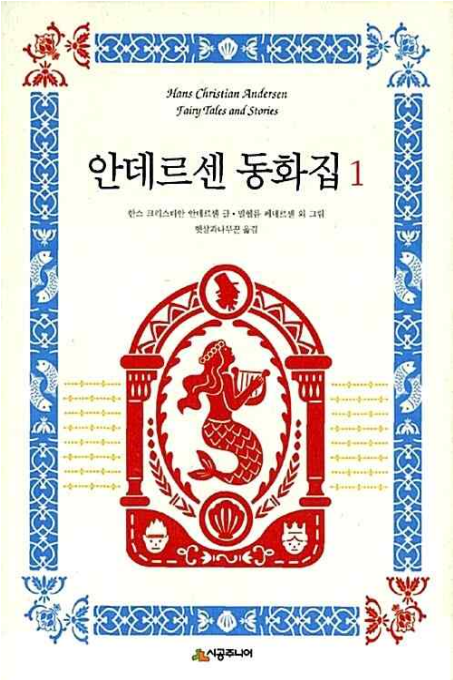
아이들을 대하는 이수 엄마의 행동과 말은 배려 깊은 아이로 성장시키기 충분하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도 강요가 아닌 아이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변화할 수 있게 하고.... 그저 감탄만 나온다.

나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많아진다.

➽ 이수는 특별한 아이다. 너무 빨리 철이 든 아이의 모습이 대견하기도 하지만 이수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이 생겼다.

➽ 그림 영재로 방송에도 나왔던 이수는 제주도에 살고 있고 함덕해수욕장 근처에 전이수 갤러리《걸어가는 늑대들》에서 전이수 작가의 그림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기회가 된다면 갤러리를 방문하고 싶다.

♠『안데르센 동화집1~7』



•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글 / 빌헬름 페데르센 그림

『안데르센 동화집』 시공주니어에서 안데르센이 남긴 200여편의 동화 중 156편을 완역하여 1~7권으로 출간하였다.

《인어 공주》, 《미운 오리 새끼》, 《벌거벗은 임금님》등 어릴 때 읽었던 이야기들이 각 권에 담겨 있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만 읽는 동화책이 아닌 어른들도 동화를 가까이하여 내 안의 어린 시절의 마음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책으로 회원들과 함께 읽어보았으면 하여 선정하였다.

우리는 『안데르센 동화집』1~7권 중 1권을 선택하여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한편씩을 골라 동아리 시간에 함께 읽어보았다.

•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덴마크 출신의 소설가이자 동화 작가. 18015년 덴마크의 작은 시골 마을 오덴세에서 태어남.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인형을 만들어 주는 걸 좋아해 훗날 안데르센이 동화 작가가 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가수나 연극 배우를 꿈꿔 떠난 코펜하겐에서 재능이 없어 퇴짜를 맞았지만, 그의 예술적 재능을 눈여겨본 궁전 관료 요나스 콜린의 후원으로 코펜하겐대학에 입학하고 유럽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1835년경부터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기 시작해 160편이 넘는 작품을 남겼다.

자신의 삶을 동화로 부활시킨 안데르센은 "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내 삶에서 나왔다. 상상으로 만들어 낸 인물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예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들이다."라고 했다.

그의 작품 《전나무》와 《못생긴 새끼 오리》는 자기 모습을 반영한 가장 자전적인 요소가 많은 작품으로 여겨지며, 《빨간 구두》의 카렌은 자신의 의부 누이를 주인공으로 쓴 작품으로, 안데르센의 작품에 구두나 발이 나오는 작품이 많은 것은 구두 수선공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안데르센동화집1~7』 읽고

➽『안데르센 동화집1』《행복의 덧신》

고문관의 이야기에서는, 이미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속에서 더 오래전의 시대가 펼쳐지니, 어휘를 비롯하여 빈약한 역사 상식 탓에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읽어갈수록, 이렇게 오래된 동화

에서 소위 말하는 '타임머신' 종류의 사건들이 전개된다는 것이 놀라웠고 마치 요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게 술술 읽혔다. 유럽의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좀 더 많이 알고 있었다면 더욱 즐겁게 읽었겠지만, 그럼에도《행복의 덧신》이 하나의 이야기만으로 고문관과 야경꾼과 수련의와 서기와 신학생의 다양한 삶을 살아볼 수 있었고, 그들을 둘러싼 '행복'과 '슬픔'에 관한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나 자신과 아이에게 '나라면 무엇을 바랐을까?' 물을 수 있었다. 그리고 죽음에 관한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슬픔의 요정이 한 말이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다.
"이 사람은 스스로 죽은 거지 천국으로 불려 간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영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물을 캐낼 만한 힘이 아직 없어.... " 나의 영혼은 '내게 주어진 보물'을 캐낼 만한 힘이 있는가.

❥『안데르센 동화집2』《완두콩 위에서 잔 공주》

이 이야기는 안데르센 동화 중 가장 짧은 이야기이다. 단편에서 주는 간결함, 통쾌함도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알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많다. 이야기를 읽다 보니 금세 끝나버린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며 이야기의 재미를 느껴 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진짜 공주님 찾기 미션이랄까....

진짜 공주를 찾아다닌 왕자는 항상 뭔가 미심쩍었고 그래서 진짜 공주를 찾지 못한다. 그럼, 뭐가 미심쩍다는 걸까? 미심쩍다는 말에서 각자의 많은 생각들이 생긴다. 공주라면 미모, 품성, 똑똑함 등 뭐가 있어야 할까? 궁금해진다. 태생이 공주라면 굳이 폭풍우가 치는 비 오는 날 비에 젖어 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더욱 알고 싶어진다. 40장의 이불 밑에 있는 완두콩 때문에 온몸이 멍들고 잠을 못 잔 그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짜 공주가 틀림없다고 한다. 예민한 감각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에 적합했으니 당연히 그들은 진짜 공주를 찾은 것이다. 예민한 감각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소중하고 유용할 수도,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안데르센 동화집2』《할머니》

아는 것도 무지 많은 할머니는 죔쇠가 달리고 바짝 마른 장미 한 송이가 끼워져 있는 성가집을 갖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 마른 꽃을 보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그 눈물이 장미 꽃잎에 떨어질 때마다 색깔이 선명해지고 꽃잎이 도톰해지며 방안이 향기로운 냄새로 가득해진다. 사방의 벽이 사라지고 초록 숲이 나타나고 반짝이는 햇살이 비쳐 들면서 할머니는 금빛 고수머리 아가씨가 된다.

그 옆에 늠름한 청년이 앉아서 장미꽃을 건네자, 할머니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아가씨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를 띤다. 청년이 떠나고 수많은 추억과 지난 기억들이 할머니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장미꽃은 성가집 속에 끼워지고.... 할머니는 다시 할머니로 돌아와 책갈피 속 장미꽃을 바라본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었다.

나하고 친근한 것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내 나이 때 흔히 보게 되고 겪게 되는 것. 그것은 나이 듦과 죽음이다.

어떻게 나이를 들어갈 것인가? 어떤 늙은이로 늙을 것인가? 어른으로 늙을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절대 수월한 과정은 아닐 것이다. 다소 무겁고 우울할 수 있겠으나 잘 늙기 위해 잘 죽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안데르센 동화집2』《못생긴 오리 새끼》

못생긴 오리 새끼가 아름다운 백조로 성장하는 이야기로, 오리를 통해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반성할 기회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오늘의 상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어른을 위한 동화인 것 같다.

백조가 된 이후에도 자만하지 않았던 태도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한 순간에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안데르센 동화집2』《빨간 구두》

카렌은 빨간 구두에 마음을 뺏겨 자신을 도와준 할머니를 돌보지 않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빨간 구두를 신고 교회에 간 벌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밤낮으로 빨간 구두를 신고 춤을 추는 무시무시한 벌을 받게 되고 결국 춤을 멈추기 위해 죄인의 머리를 자르는 사람에게 스스로 다리를 잘라달라 요청하는 벌을 받는다.

그 후 카렌은 교회에서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카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 편안한 안식을 갖게 된다.

안데르센은 자신의 어둡고 불행한 가족사를 늘 숨기고 싶어 했다. 그중 아버지가 다른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존재는 안데르센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그녀의 이름은 '카렌 마리'로 빨간 구두 속 주인공 이름과 같다. 안데르센은 사는 동안 거의 마주친 적 없는 카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한다.

안데르센의 불안했던 마음이《빨간 구두》속에 담겨 있는 것 같다.

➽『안데르센 동화집3』《성냥팔이 소녀》

가난한 성냥팔이 소녀가 추위에 언 몸을 녹이러 팔다 남은 성냥을 다 태우고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내용이다.

어릴 적 읽었던 기억으로는 소녀가 불쌍하고 이야기가 슬펐었지.... 그래도 할머니 옆으로 갔으니 행복했을까? 정도였다.

아이들의 노동이 흔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고는 하나, 성냥을 팔지 못해 돈 한 푼 없이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매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소녀를 추위 속에 떨게 한 원인일 것이다. 뉴스에 나오고도 남을 비극적인 죽음을 할머니를 만나는 것으로 아름답게 표현은 하였지만 안데르센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시대의 아픈 상황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안데르센 동화집3』《쓸모없는 여자》

"죽으라고 일만 했더니 금방이라도 손톱 뿌리에서 피가 쏟아질 것 같구나. 하지만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다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 너희 어머니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단다! 하늘나라에 계신 하느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남들이야 쓸모없는 사람이라 부르든 말든."·····《쓸모없는 여자 중》

구두 수선공 아버지와 세탁부 어머니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성실한 세탁부가 술을 먹으면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보지 못하고 쓸모없는 술주정뱅이로 깎아내리는 시장의 냉정함을 비판하고자 쓴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안데르센 동화집3』《어느 어머니 이야기》

죽음의 신이 물었습니다. "너는 이리로 오는 길을 어떻게 알았느냐? 어떻게 나보다 빨리 올 수 있었지?"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인걸요!" -중략-

제발 이 모든 불행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데려가세요!"·····**《어느 어머니 이야기 중》**

지나치리만큼 극대화된 모성애는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강요하는 느낌 마저 든다.

➽『안데르센 동화집7』《행운은 한낱 나뭇조각에도》

이 이야기는 행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년내내 행운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딱 한 번의 행운이 오고, 하느님은 갓난아기를 보내실 때 행운의 선물도 함께 보낸다고 해요. 하지만 그 선물이 무엇으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뜻하지 않게 그 선물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뉴턴의 행운은 사과가 톡 떨어졌을 때 발견된 거처럼요. 옛날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박 기술자였는데 주로 우산 손잡이와 우산 고리를 만드는 일을 하죠. 하지만 생계가 넉넉하지 않아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자의 집 마당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아요. 기술자의 행운은 보이지 않는 배나무 열매 속에 숨어있습니다.

어느 날 밤 세찬 바람이 몰아치며 배나무의 굵은 가지가 부러졌어요. 기술자는 부러진 배나무의 가지로 재미 삼아 크고 작은 배들을 조각해 배나무에서 배가 열렸다며 아이들에게 나무로 만든 배를 장난감으로 주었죠. 어느 날 집에 하나뿐인 우산이 우산살을 하나로 모으는 단추가 떨어져 고장이 나자, 이전에 만든 작은 배 모양 조각을 단추로 끼워 넣으니 완벽하게 맞아 우산이 깔끔하게 접히게 되었죠.

기술자는 이듬해 우산 손잡이에 만들어 납품할 때 나무배 조각을 함께 넣자,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며 주문량이 늘어나 공장까지 세우게 됩니다.

기술자는 '내 행운은 배나무 안에 있었다'라며 자기 삶 속에 숨어있는 행운을 발견하죠.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뜻하지 않는 곳에서 행운이 옵니다.

신은 모든 아기에게 꿈에도 생각지 않은 행운을 숨겨서 보낸다.... 는 책 머리말의 글처럼 당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견뎌내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만의 행운이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으로 열심히 살아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데르센 동화집7』《양초》

이야기 속에 밀랍 양초와 고래 양초가 등장한다. 밀랍 양초는 자신이 다른 양초보다 밝게 빛나고 오래가며, 샹들리에나 은촛대에 꽂힌다며 고래기름 양초를 무시한다.

고래 양초는 밀랍 양초를 부러워하며 자신이 가난한 집의 부엌에 들어가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된다.

하지만 가난한 집에서 만난 어린 소녀의 소박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행복의 기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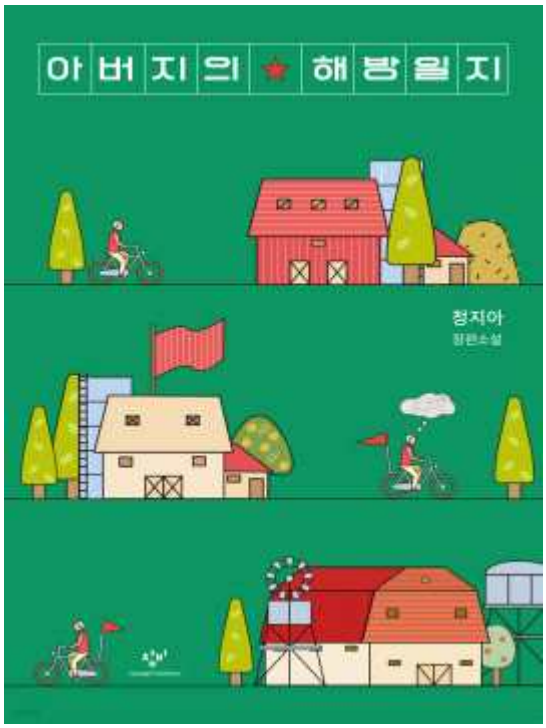
출생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개척해 나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무지갯빛으로 바뀔 수 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 어떤 상태냐에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는 의미이다.
고래 양초처럼 지금 처한 상황을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다면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면 행복해진다. 우리 삶은 특별한 시간보다 평범한 시간이 더 많고 우리는 그 시간 속 주인공이다.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삶 속에서 서로의 어깨를 보듬어 준다면 우리의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안데르센 동화집7』《양초》

부잣집에 있던 밀랍 양초는 자신이 매우 귀한 양초 이어서 샹들리에나 은촛대에 꽂히게 될 거라며 고래기름 양초에게 으스댄다. 고래기름 양초는 밀랍 양초보다 귀하지는 않지만, 다른 싸구려 양초보다는 자기가 낫다며 자신을 스스로 위로한다.
고래기름 양초는 무도회가 열릴 기대로 밝게 웃던 부잣집 딸의 얼굴에서 이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거로 생각한다. 그러다 부잣집 주인이 고래기름 양초와 감자를 챙겨 맞은편 가난한 집에 나누어준다.
가난한 집으로 넘겨져 촛대도 없이 값싼 성냥으로 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 그러나 가난한 집 가족들은 고래기름 양초를 부잣집에서 받은 아주 아름다운 양초라고 하며, 따뜻한 감자와 사과를 저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진심 기뻐한다. 기뻐하는 가난한 집 가족들을 보며, 무도회로 기뻐하던 부잣집 딸의 행복한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처지나 감정을 어림잡는 것은 어리석으며, 행복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의 행복 크기나 깊이를 비교할 수 없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3 파주【지혜의숲】에서 찾아본 책

♠『아버지의 해방일지』



• 정지아 글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김유정 문학상, 심훈 문학대상, 이효석 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문학성을 입증받은 정지아 작가가 32년 만에 선보인 장편소설. 정지아 작가의 실제 삶을 많이 반영되었고, 실제로 작가의 아버지는 빨치산이었고, 책 속 지역의 배경이기도 한 전남 구례에 작가가 살았지요.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전직 빨치산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례식장에서의 3일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조문객들을 통해 아버지의 과거를 회상해 보는 이야기이며,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통해 아버지의 죽음이 슬픔이 아닌 고단한 삶의 해방으로 다가가는 이야기로 딸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간의 오해를 풀고 아버지를 좋은 감정으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다.

♠『순례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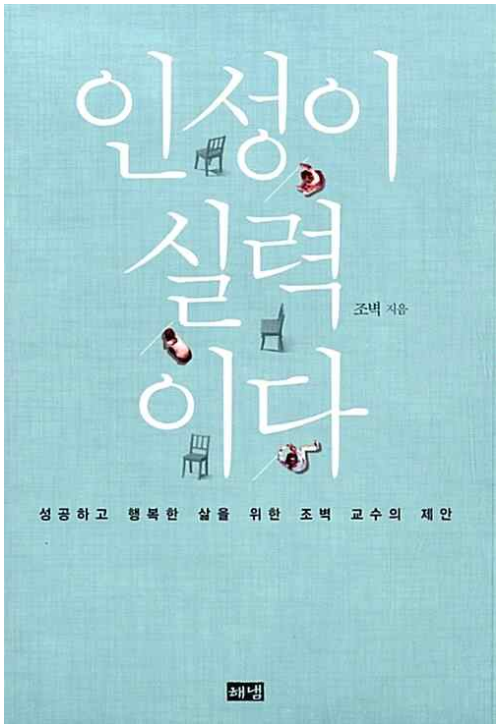
• 유은실 글

『순례주택』은 '거북로 12길 19(거북동)' 거북 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오 분 거리이고, 필로티 구조의 4층 건물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청소년 필독 도서로 선정이 되었지만 어른이 읽어도 좋다.

좋은 어른이란 누구일까? 나는 지금 좋은 어른일까? 어른으로 잘살고 있는 건 맞는 걸까? 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순례주택』에서 인상 깊은 구절로 꼽히는 《**어른이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 부모가 얼마짜리 집을 사주고, 얼마짜리 차를 사주고, 매달 얼마의 용돈을 주는 걸 서로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누가 누가 더 어린가 내기하고 있는 거라고.**》, 순례 씨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 《**관광객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는 순례자로 살기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관광객이 되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을까?

♠『인성이 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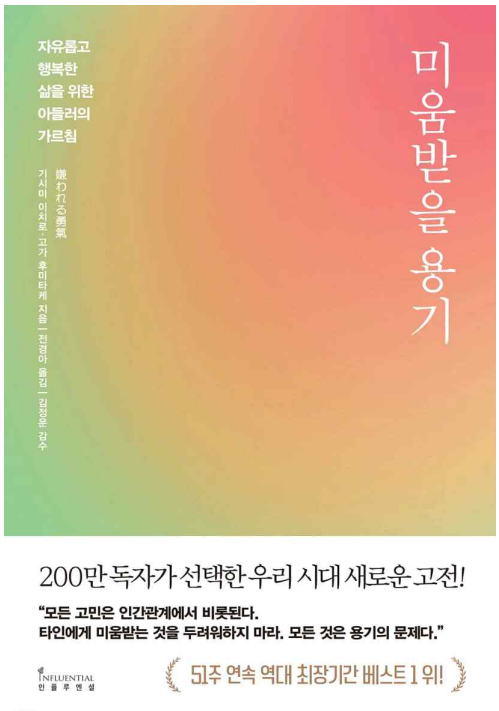


• 조벽 글

『인성이 실력이다』조벽 교수가 전하는 인성교육의 핵심. 교육정책과 교수법에 관한 세계적 전문가로서, 저자는 30여 년간 국내외 교육 경험에서 우러나온 통찰과 과학적 근거를 통해 효과적인 인성교육의 장으로 안내하고, 학교와 가정에서 교사와 부모들이 스스로 인성교육을 점검하고 디자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목표를 '삼율'로 실천 전략을 '육 행'으로 제시한다.
학교, 가정, 사회에서 바람직한 행동과 실천법을 알려주는 책.

《입에 담기 어려운 상스러운 욕을 밥 먹듯이 하고, 집단 성폭행에 심지어 후배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악마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중략- 사실 수많은 연구에 의해 원인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적 요인입니다. 억압적이거나 미성숙하거나 무책임한 어른이 있는 환경에서 아이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그 답답함과 절망감과 무기력감은 짜증으로 나타납니다.》…… <8장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어디에서 오는가> 중

♠『미움받을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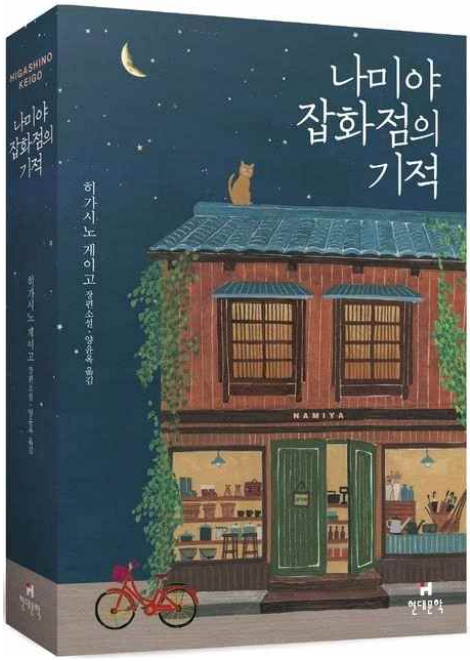


•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글

『미움받을 용기』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
알프레드 아들러의 심리학을 알려주는 철학자(기시미 이지로)와 청년(고가 후미타케)의 대화로 쓰여있어요.
인간관계의 불안과 걱정을 다스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안내하는데 아들러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 철학자 : 몇 번이고 말했지만,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라고 주장하지. 즉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인간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갈망하네.
하지만 우주에서 혼자 사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해. 생각이 여기에 이르렀다면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네.
• 청년 : 뭔데요?
• 철학자 : 단적으로 말해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일세.
• 청년 : 네? 무슨 말씀이신지?
• 철학자 : 자네가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 것. 그것은 자네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자 스스로의 방침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표일세.》……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편 중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 히가시노 게이고 글

총 5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30여 년째 비어 있는 폐가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든 삼인조 좀도둑이 뜻밖에도 과거로부터 도착한 고민 상담 편지에 답장하면서 겪게 되는 기묘한 하룻밤의 이야기를 그린다.

시간이 멈추고,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특별한 공간이 나미야 잡화점. 이곳과의 인연을 통해 삶의 깨달음을 얻고, 어떤 이는 진로를 바꾸기도 하며, 어떤 이는 아예 미래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설령 엉터리 같은 내용이라도 서른 통이나 이 궁리 저 궁리 해가며 편지를 써 보낼 때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 그런 수고를 하고서도 답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

그래서 내가 답장을 써주려는 거야. 물론 착실히 답을 내려줘야지. 인간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돼.》……【제3장 시빅 자동차에서 아침까지】 중에서

♠『일류의 조건』



• 사이토 다카시 글

『일류의 조건』은 한 분야에 있어 통달한 전문가, 즉 '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건 세 가지인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 '추진하는 힘'을 갖추어야 함을 전하는 실용적인 자기계발서다.

• 《훔치는 힘》은 배운다거나 모방한다는 것에 가깝지만 더욱 간절하고 강렬한 욕망이 담긴 의미.

• 《요약하는 힘》은 복잡한 정보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는 능력. 저자는 이를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강조.

• 《추진하는 힘》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입니다. 단시간에 밀어붙이는 힘으로, 《훔치는 힘》, 《요약하는 힘》을 통해 얻은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힘이라 알려줍니다.

4 내가 읽어주고 싶은 시 한 편

첫사랑

이정록

헤어진 지
열흘이 됐다.

나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을 것이다.

세월이
약이라면.

청포도

이육사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을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두렴.

딸맘을 위한 헌시

그만보오 그만보오 앞머리에 목숨거네
인스타좀 그만보오 쌍거풀에 목숨거네
밤새도록 띠링띠링 곱슬머리 내탓아냐
니친구들 잠도없냐 네아빠가 곱슬머리

화장해도 똑같다네 놀이동산 뽕을빼네
꾸안꾸면 왜하느냐 연간회원 끊을기세
그시간에 이를닦세 블라우스 교복치마
그시간에 머리감세 수선집에 문턱닳네

카드한번 빌려주면 딸이좋다 누가했나
돌아오질 않는구나 아들보다 후벼파네
문자알림 띠링띠링 비수꽂는 한마디에
나보다더 돈을쓰네 오늘밤도 눈물바람

발디딜틈 없는방에 나중에는 딸좋다네
옷산책산 굿즈천지 엄마친구 되준다네
인생네컷 스티커로 그말한번 믿어보자
도배해도 되겠구나 그래야지 버틴다네

완도에 사시는 황화자 할머니께서
사별한 남편을 그리워하며 쓴 시화.
평생 한글 쓰는 법을 모르셨다가
여든 넘은 나이에 한글을 배워 쓰신 시



오직 한사람

황화자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어."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 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딸 아 이

나태주

너를 안으면
풀꽃 냄새가 난다

세상에 오직
하나 있는 꽃,

아무도 이름
지어주지 않는 꽃,

네게서는 나만 아는
풀꽃냄새가 난다.



➧ 짧고 간결한 시를 읽으면서, 나의 보물인 "딸들이 생각났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내 아이들의 살냄새 그걸 나만이 아는 그 느낌이 떠올라서 왠지 웃음이 나왔다. 이 짧은 문장으로 감동을 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새삼 놀랐다.

나를 키우는 말

이해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
마음 한 자락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함변서
다시 알지

❥ 부정적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도 순화하는 듯하다....

너를 두고

나태주

세상에 와서
내가 하는 말 가운데서
가장 고운 말을
너에게 들려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가진 생각 가운데서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

세상에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표정 가운데서
가장 좋은 표정을
너에게 보이고 싶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진정한 이유
나 스스로 네앞에서 가장
좋은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이다

➧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과 다르게 좋은 모습이 아닐 때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네 앞에서는 가장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소망들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 같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도종환(1955.9.27.~)은 교사 겸 시인 출신 정치인이다. 중등교사로 재직할 때 쓴 시집인 '접시꽃 당신'이 히트하며 이름을 알렸다.

- 1연: 어려움 속에서도 성숙해지는 사랑
- 2연 : 시련 속에서 완성되는 삶

의미

- 꽃, 줄기 → 사람의 인생(삶)
- 비, 바람 → 시련, 고난
- 흔들림, 젖음 → 타인에 의한 방황, 고통

오늘도 수고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그 길을 가는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인생의 정답을 알 수 없겠지만
답과 가까워지려고 열심히 달리는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가슴속 꿈을 놓치지 않으려고
꿈에게 계속 말을 걸고 쓰다듬어주는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 누구도 아픔을 안아주지 않아도 애써 미소 지으며
남의 아픔을 먼저 알아채 준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빛이 있다고 믿고 다가갔지만 만난 건 어둠이었지만
그래도 다시 희망을 믿고 있는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다며
길섶에 핀 꽃에게 이름을 불러준 당신
오늘도 수고했어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
수고했어요

'아름다운 시와 노래' 중에서

발을 깨우다

나태주

어렵게 힘들게 저녁 시간
잠을 이루고 난 아침
뜨거운 물 한 잔 끓여
우선 마시고
그다음에 하는 일은
손으로 다리를 주무르고
골고루 발가락과 발바닥을
쓰다듬어주는 일
어제 자네도 일어나야해
얼어나 오늘도 나와 함께
일을 해야지
먼 길 떠나야하고
좋은 사람 낯선 풍경들
만나러 가야해
나보다 먼저 가야해
자네가 한 발자국
먼저 가주기를 부탁해
날마다 아침마다 그렇게
발을 깨운다

그땐 왜 몰랐을까

정채봉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 이었던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내 세상 이었던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붙들었어야 했던것을
그땐 왜 몰랐을까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정채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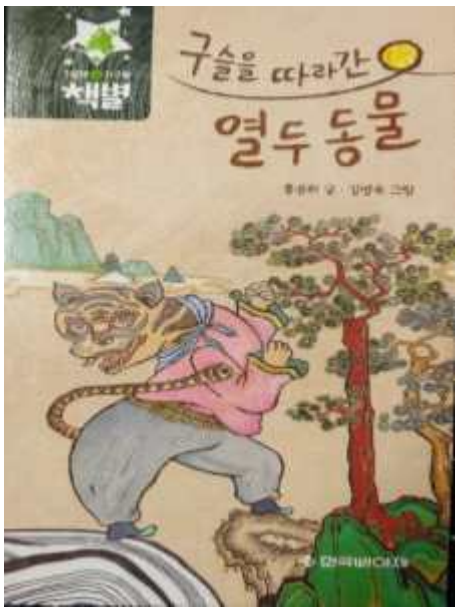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반나절 반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대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 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 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5 우리가 골라 본 어른이 읽어도 좋은 그림책

♠『구슬을 따라간 열두 동물』



• 홍윤희 글 / 김영숙 그림

쥐에게 굴러온 금빛 구슬이 여행을 하며 열두 동물을 만나는 이야기.

뒷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에는 열두 띠별 성격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 열두 동물 이야기를 나와 견주어 가며 읽으니 나와 다른 이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쉬울 듯하다.

나의 띠와 너의 띠는 맞을까? 너랑 나랑 이래서 조금 힘들었던 걸까?

요새 아이들처럼 MBTI 성향처럼 우리의 띠로도 성향을 맞춰 어울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여유를 누려보았다.

- 양띠 ····· 조심성이 많아요!
- 말띠 ····· 무엇이든 열정적이에요!
- 닭띠 ····· 계획적이고 꼼꼼해요!
- 원숭이띠 ····· 재주가 많아요!
- 돼지띠 ····· 꿈과 희망을 잃지 않아요!
- 개띠 ····· 믿음이 최고예요!
- 소띠 ·····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요!
- 쥐띠 ····· 차곡차곡 저축을 잘해요!
- 토끼띠 ····· 언제나 생기가 넘쳐요!
- 호랑이띠 ····· 어떤 어려움도 이겨 낼 수 있어요!
- 뱀띠 ····· 내 일은 내 힘으로 해요!
- 용띠 ····· 무엇이든 자신 있어요!

♠『친구에게 With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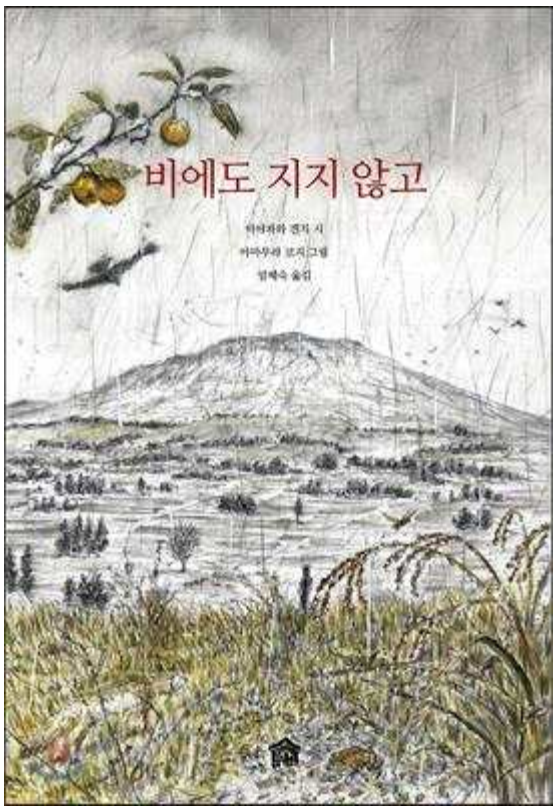
• 김유정 글

『친구에게』는 OHP 필름을 사용하여 만든 독특한 형태의 그림책입니다. 투명한 필름에 그려진 그림은 종이의 그림과 만나 하나의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필름을 넘기면 그 위의 그림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납니다. 필름의 뒷면이 앞면과 반대로 보이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작을지라도 우정의 힘은 엄청납니다. 이 책에는 친구를 향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 줄의 짤막한 글이지만 천천히 읽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몽글몽글 올라옵니다.

♠『비에도 지지 않고』



• 미야자와 겐지 글 / 야마무라 코지 그림

『비에도 지지 않고』는 미야자와 겐지의 자화상 같은 **시**. 자기 고향인 이와테현은 냉해와 가뭄이 심한 곳이었다고 한다.

겐지는 자연조건에 지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살아간 자기의 이야기를 동화를 쓰고 시를 썼다고 한다. 척박한 자연조건을 타개하고자 농업학교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했다는 겐지.

어떠한 역경에도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여 쓴 시라고 생각이 든다.

처음『비에도 지지 않고』를 읽으면서《**지지 않고**》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걸까? 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겠다는 것인지, 꽃이 비에도 꽃잎을 떨구고 지지 않기를 바란다.... 의《**지지 않고**》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다.

읽다가 보니 싸움에《**지지 않고**》가 맞겠구나.... 라고 선택.

눈, 비 등에 지지 않고 벼, 식물이 잘 자라는 모습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표지 그림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

- 미움받지 않고 살기 : 혼자만 너무 가치 있게 살고 싶다는 것이 욕심일 수도
- 잘 보고 듣고 알고 잊지 않기 : 말하기는 없다. 나이 들수록 말하기가 더 쉽고 너무 많이 하는 게 두렵다.

말하지 않고 잘 보고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잊지 않겠다는 말이 기억에 남고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지하철입니다』



• 김효은 글·그림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립니다. 지하철은 기다림과 사연을 알고 있습니다.

완주씨는 " 예쁜 딸 한 번 더 보느라 출근길은 늘 꼴등이지만 퇴근길엔 일등으로 달려 집에 갈 거야"라고 하는 그 마음 말이죠. 보따리를 안고 타는 할머니의 모습 속에 바다 그림이 펼쳐집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막내딸 유선의 이야기 나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하철을 탔을 때 모습을 떠올렸어요. 이 장면에서 가슴 뭉클함이 느껴집니다.

학원 다니느라 정신없는 나윤이. 구두 수선하는 재성 아저씨, 물건 파는 구공철 아저씨 등. 지하철은 여러 사람의 사연을 태우고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무거운 삶과 고달픔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과나무밭 달님』



• 권정생 글 / 윤미숙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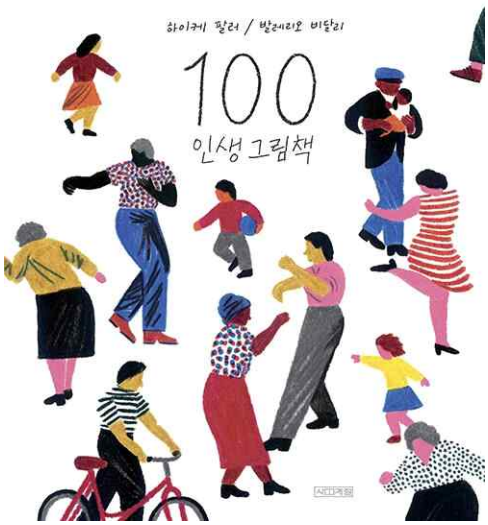
'권정생 문학 그림책' 시리즈의 세 번째 권.

『사과나무밭 달님』은 병들고 가난하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착하게 사는 필준이와 어머니 안강 댁의 모습을 그리면서 서글픈 현실 속에서도 달빛같이 환하게 빛나는 희망과 기쁨을 이야기한다.

나이 마흔이 다 된 총각 필준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사과나무밭 외딴집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철부지가 되어간다. 그래도 필준이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필준이와 그 어머니의 행복을 내가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100 인생그림책』



• 하이케 팔러 글 / 발레리오 비달리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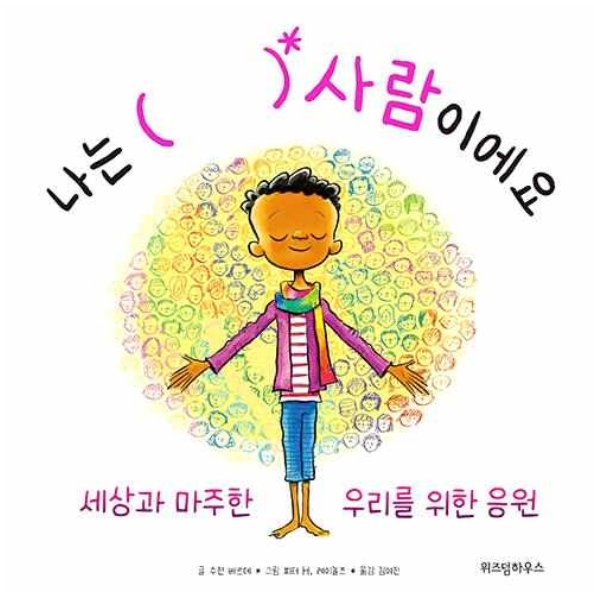
0세부터 100세까지, 100컷으로 보는 인생 그림책.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 나이에 마주할 삶의 순간들이 그림으로 펼쳐진다. 매일 똑같은 날처럼 보여도, 조금씩 다른 인생의 진짜 모습들. 나의 인생은 어디쯤 있는지.... 지나온 인생을 책에서처럼 보냈었는지....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보내면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 함께 읽고 서로의 삶을 나눠보고 싶은 그림책이다.

• 『100 인생그림책』 인상 깊은 나이를 하나씩 선택해 봅니다.

- 일곱 살 ····· 세상은 좀 지루하기도 하지.
- 열두 살 ····· 벌써 엄마 아빠보다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구나.
- 열일곱 살 ·····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야. 네가 사랑에 빠지는 일이.
- 스물두 살 ····· 어딘가로 나아가고 싶다면 아무리 작은 발걸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고 떼어야 해.
- 서른 살 ····· 행복이란 상대적이라는 걸 배웠지?
- 마흔 살 ····· 누군가를 이토록 걱정한 적도 한 번도 없을 거고.
- 쉰 살 ····· 인생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어. 누군가 너를 끌어주고 있니? 누군가 너를 밀어주고 있니?
- 쉰여덟 살 ·····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일은 너무 어려워.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 예순 살 ····· 너도 이제 예순이구나. 하지만 어릴 때 보았던 60대 할머니가 네 자신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지?
- 예순네 살 ····· 뭔가가 너를 떠나왔던 곳으로 끌어당기지...
- 일흔 살 ···· 네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 생전 처음 해본 일이 아주 마음에 든다는 것도 이제야 알았을 거야.
- 일흔세 살 ····· 사는 동안 뭔가 다른 일을 해봤더라면 싶은 게 있니?
- 여든 살 ····· 마침내 때가 되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너는 지금 이 순간을 훨씬 충실히 살 수 있어.
- 여든두 살 ····· 뭘 하든 시간은 전보다 곱절이 들지.
- 아흔 살 ····· 인생은 뒤죽박죽이야.
- 아흔한 살 ····· 오랜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 아흔아홉 살 ·····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

♠『나는 ( )사람이에요』



- **수전 베르데 글 / 피터 H. 레이놀즈 그림**

사람으로 태어나 세상을 마주한 우리를 위한 응원을 담은 책.

『나는 ( )사람이에요』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나아갈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마음만 달리 먹으면 실수도 멋진 선택일 수 있고, 엉망이었던 하루도 근사하게 바꿀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나는 ( )사람이에요』 개인으로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 속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혼자보다 함께하는 기쁨을 일깨워 주며 더불어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인지, 갈등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나는 ( )사람이에요』 제목의 괄호 속 나는 어떤 모습일지 생각하고 나를 되돌아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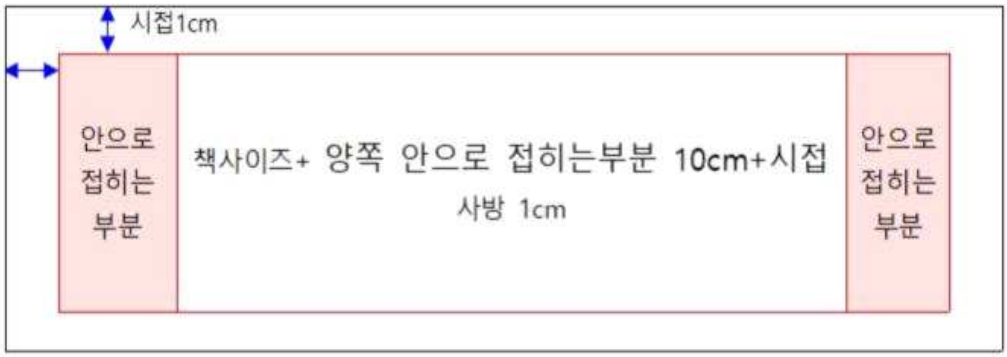
-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 하성고 동아리회원
-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픈 사람이에요 …… 사우초 동아리회원
- 나는 항상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 풍무초 동아리회원
- 나는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나란 사람이에요 …… 달빛유치원 동아리 회원
-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 김포호수초 동아리 회원
-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 청수초 동아리 회원
-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 이리유치원 동아리 회원
- 나는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 사우고 동아리 회원
- 나는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 운양초 동아리 회원
- 나는 해바라기 같은 사람이에요 …… 고창초 동아리 회원
- 나는 보통의 평범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 하늘빛초 동아리 회원
- 나는 완벽을 꿈꾸는 사람이에요 …… 장기중 동아리 회원
- 나는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 신양초 동아리 회원
- 나는 취향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 김포호수초 동아리 회원
- 나는 슈퍼우먼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 김포한가람초 동아리 회원

6 북 커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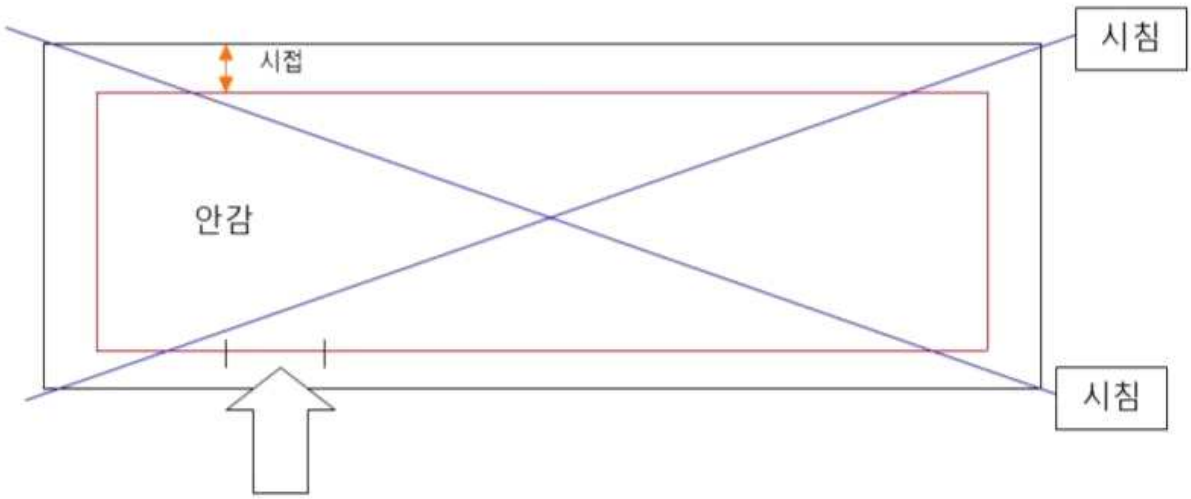
➧ 내가 좋아하는 책을 더 소중하게 할 수 있는 북 커버 만들기로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 북 커버 만드는 방법

1. 겉감과 안감에 자신의 책 사이즈+양쪽 안으로 접히는부분 10cm+시접1cm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린 후 시접을 남기고 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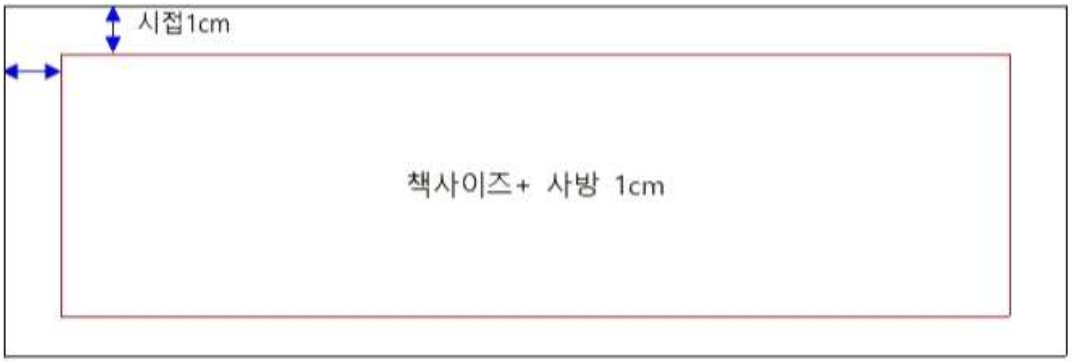


2. 겉과 겉을 맞대고 안이 겉으로 나오도록 하여 시침질(파랑)한 후, 그린 선(빨강)을 따라 홈질한다. 단, 창구멍을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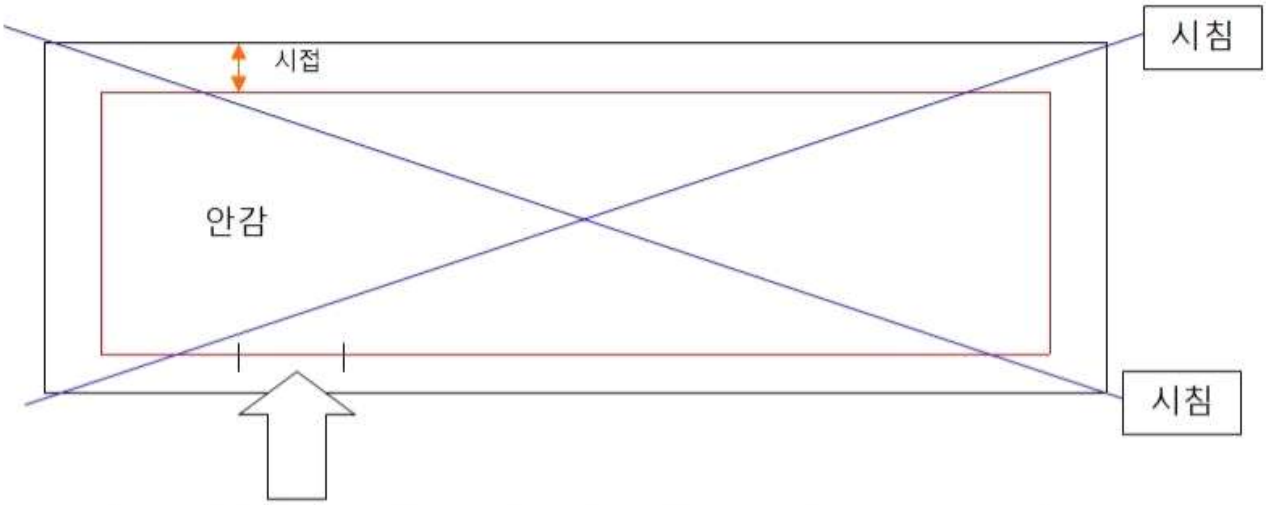


홈질 시작할 때 창구멍 만들어질 방향 확인하기
창구멍 : 누빔 겉감 무늬를 확인하고, 왼쪽 아래에 창구멍을 만들어야 뒤집었을 때 창구멍 막을 부분이 책의 뒷면 아래쪽이 됩니다.

1. 겉감과 안감에 자신의 책 사이즈+1cm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린 후 시접을 남기고 오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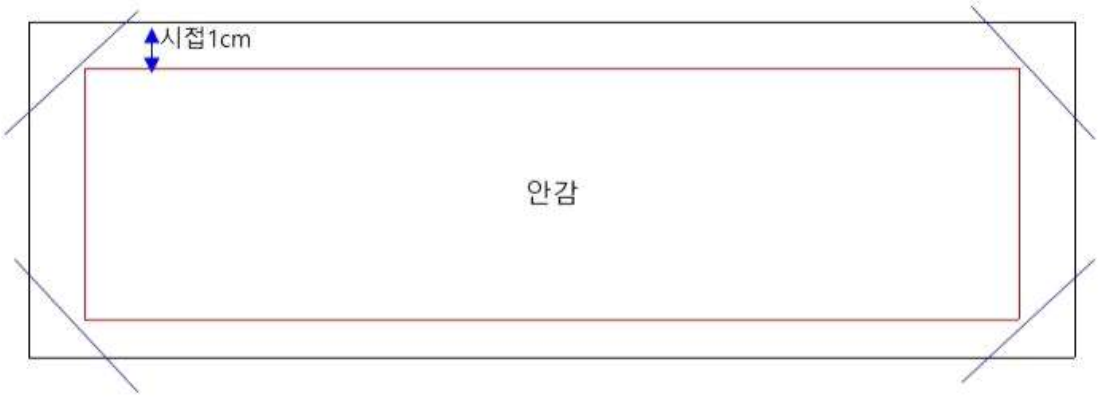
2. 겉과 겉을 맞대고 안이 겉으로 나오도록 하여 시침질(파랑)한 후, 그린 선(빨강)을 따라 홈질한다. 단, 창구멍을 남겨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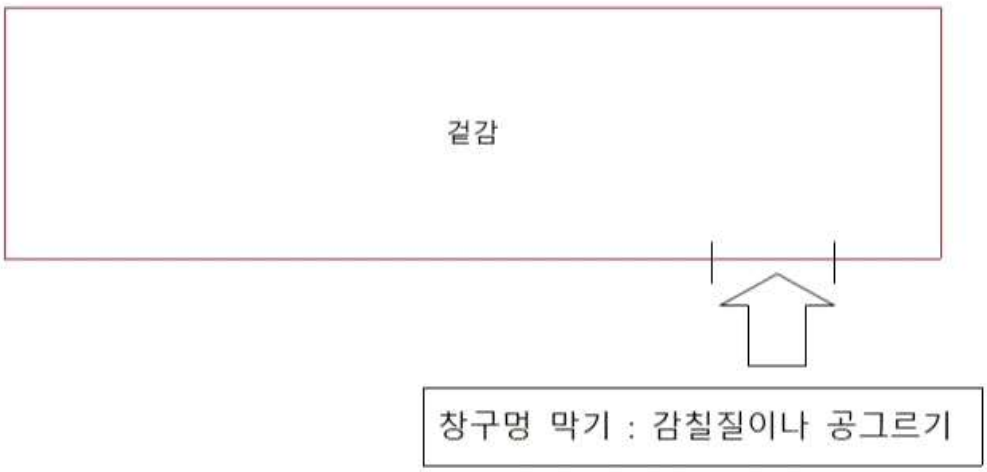
홈질 시작할 때 창구멍 만들어질 방향 확인하기

창구멍 : 누빔 겉감 무늬를 확인하고, 왼쪽 아래에 창구멍을 만들어야 뒤집었을 때 창구멍 막을 부분이 책의 뒷면 아래쪽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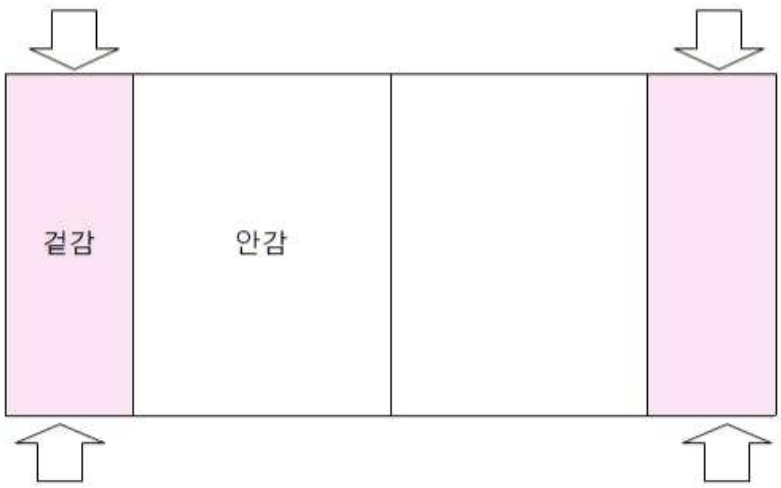
3. 시침질한 실을 빼내고, 모서리 부분을 자른 후, 창구멍을 통해 뒤집는다.
뒤집었을 때 모서리가 천이 뭉쳐질수 있으니 모서리부분(파란선따라)을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자른다.



4. 뒤집은 북 커버 창구멍을 감침질이나 공그르기로 막는다.



5. 책 사이즈에 맞추어 책날개가 들어갈수 있도록 겉감을 안감쪽으로 접어 넣고, 위와 아래(화살표부분)를 감침질이나 공구르기 한다.



♠ 북 커버 완성



